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 2014 Annual Report 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 04 발간사
- 05 평가 및 지향
  
- 08 2014 사업지역
- 09 2014 방북자 및 물자지원 현황
- 10 2014 활동일지
  
- 12 대북지원사업
- 13 북한어린이지원사업
- 14 평화교육사업
- 16 현교과서수거사업
- 18 중국 조선족소학교 지원사업
- 21 고려인동포지원사업
- 22 국제협력사업
- 23 정책연구사업
- 24 대외협력(북민협)
- 25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6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7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8 2014 사업결산
  
- 29 함께하는 사람들
- 30 후원자 인터뷰
- 31 후원자 명단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북한이 어디야? 아프리카 보다 멀어?”



### 당신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돕자는 이야기가 뜬금없게 들리던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쌀 한톨이 없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6대 중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 발간사

## 2014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며

2014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힘을 모아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와 나눔의 정신에 공감하는 후원자 여러분들의 진정어린 성원이 있었기에 2014년 한 해에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한의 평화와 통합 운동, 그리고 해외동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해와 같이 작년에도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2014년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20년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지원지역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였으며 대북지원 규모 또한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치달았던 2010년의 4분의1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4년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남북간 정치상황에 좌우되고 남북 당국 공히 대북·대남 정책의 종속 변수로 왜곡된, 인도주의의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는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사업(BaB 캠페인)만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2009년부터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지원 국제회의' 또한 작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성과있게 개최함으로써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국제 NGO들간의 유일한 네트워크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 해 외부의 조건을 핑계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후원자들과의 소통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보고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솔직한 기록이자 후원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진솔한 고민을 담은 "2014년 사업 평가와 우리의 지향"이라는 글을 사업보고서에 처음으로 실어보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은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역사적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해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014년 사업 평가와 우리의 지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4년 1월, 전년도인 2013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평가를 하는 내부 회의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2013년 한 해를 총평하는 의미에서 나왔던 말로, "생존, 그리고 (미약한) 진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2013년과 2014년, 생존에 대해 고민했던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든 교류협력이든, 북한과 관련한 일을 하던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만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인사가 "아직 살아있구나!"였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존 사업들을 반성적으로 평가한 바탕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뒤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06년 10주년을 맞아 선포한 우리의 비전,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한 고민들을 드러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글이 실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우리의 의도를 가급적 솔직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내부의 진솔한 고민의 지점임을 감안하시면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북지원 사업

2억4천3백만4천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14년 북한에 지원한 물자 총액으로 최종 집계한 수치입니다. 일반구호와 보건 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사업 중 일반구호와 보건 의료, 농업·축산 등 3가지 분야에서는 단 한 건의 물자도 북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된 첫 해인 1996년을 제외하면은 최저치이며, 최고치를 기록

했던 2008년에 비해서는 거의 1/4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건 의료와 농업·축산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의 대북지원 사업이 거의 1996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많은 민간단체들이 추진했던 개발 지원 방식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매우 단순한 형태의 물자 지원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물자 지원 현황 표를 보더라도 일반구호 등 4가지의 항목에서 한 가지 항목에만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1996년에 이어 2014년이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물자 지원 현황 표 하나에도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북지원의 분위기가 바뀔 계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와 함께 하는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협의 차 개성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전문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조선의학과학원 산하 기생충 연구소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북측은 말라리아 환자 발생 자료 등을 우리측에 공개하는 한편 북측의 방역 절차 및 상황에 대해서도 남측과 공유했습니다. 남측의 말라리아 전문가로 협의에 참여한 교수님도 남측의 환자 발생 현황과 함께 말라리아 방역 및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는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대북지원의 분위기가 바뀌기에는 그 냉각의 온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밥 캠페인으로 불리는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이 사업의 지원물자 종류와 대상 지역 확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학교에 아기가

하고 예뻐면서도 실용적인 도서관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도서를 보내는 일입니다. 중국에는 한글로 된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조선족학교의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3가지 일이 모여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3개 학교에 네모상자(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 봐. 자유롭게) 도서관이 새롭게 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모아진 약 4만권의 한글도서가 중국 동북 3성의 약 66개 조선족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더불어 2014년 8월에는 8명의 조선족학교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 도서관 운영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10월 말에는 한국의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단체 이름에 충실한,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족학교에 새롭게 지어진 네모상자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새롭게 꾸민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는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도서관 관련 사업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나누는 일은 현재를 나누는 것이고, 책을 나누는 일은 곧 미래를 나누는 것"이라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자문위원)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이 사업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실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 3성은 바로 한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원에 있어서도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을 방문할 때에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합의 도정에도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교육 사업

2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2년간 진행했으며 고등학생들과는 연변과 조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북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마지못해 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의 고민과 많은 토론을 거쳐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몇 년 사이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평화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은 영국의 브라이튼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영국 브라이튼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이하 F4P Int'l)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접경지인 가자지구, 아프리카, 아일랜드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갈등 유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부장 1인을 영국에서 진행된 F4P Int'l 코치 양성 프로그램에 직접 파견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F4P Int'l과 F4P Korea 설립에 관한 협약서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러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국제협력과 대북지원 국제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만의 힘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일환으로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2014년까지 여섯 차례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주최해 왔습니다. 이 회의는 이제 대북지원 기관들이 모이는 유일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은 대북지원 20주년입니다. 대북지원 20주년을 맞아 올해 이 회의는 그 규모를 더욱 키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포럼·토론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무처 내 정책 논의 기구로 평화나눔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화나눔센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여러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자문과 정책포럼/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정책포럼이 2014년 60회를 넘었습니다. 정책포

럼은 지난 10여년을 이어져 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 왔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 신년사설 분석을 주제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는 이제 북한 신년사 분석을 주제로 8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제 새해를 맞아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는 매 시기 인도지원과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정책 주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진행하는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양한 사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내용을 한반도에 알리는 옹호 활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헌 교과서 수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 2012년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서울과 경기도지역 각급 학교들과 공동으로 헌 교과서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 배우고 폐기하는 헌 교과서들을 학기 말에 모아내고 이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수거, 폐기업체에 판매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북한 어린이급식지원 사업,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 한글 문화학교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사업은 시작 당시 기금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가 진행되면서 학교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할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봉사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각급 학교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헌 교과서 수거사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여·봉사 사업

참여·봉사 사업의 내용은 아직 이 사업보고서에는 독자적인 항목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 참여·봉사 사업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 교과서 수거사업과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보내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봉사 활동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약 3년 전 수원에 별도의 사무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활동이 작년까지는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에는 이를 처음부터 기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주제로 나서 기획과 진행을 하고 중학생이 참여하는 '네모상자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수원지역 학부모 강사단이 각급 학교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지역 중학교에 교내 동아리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저변 확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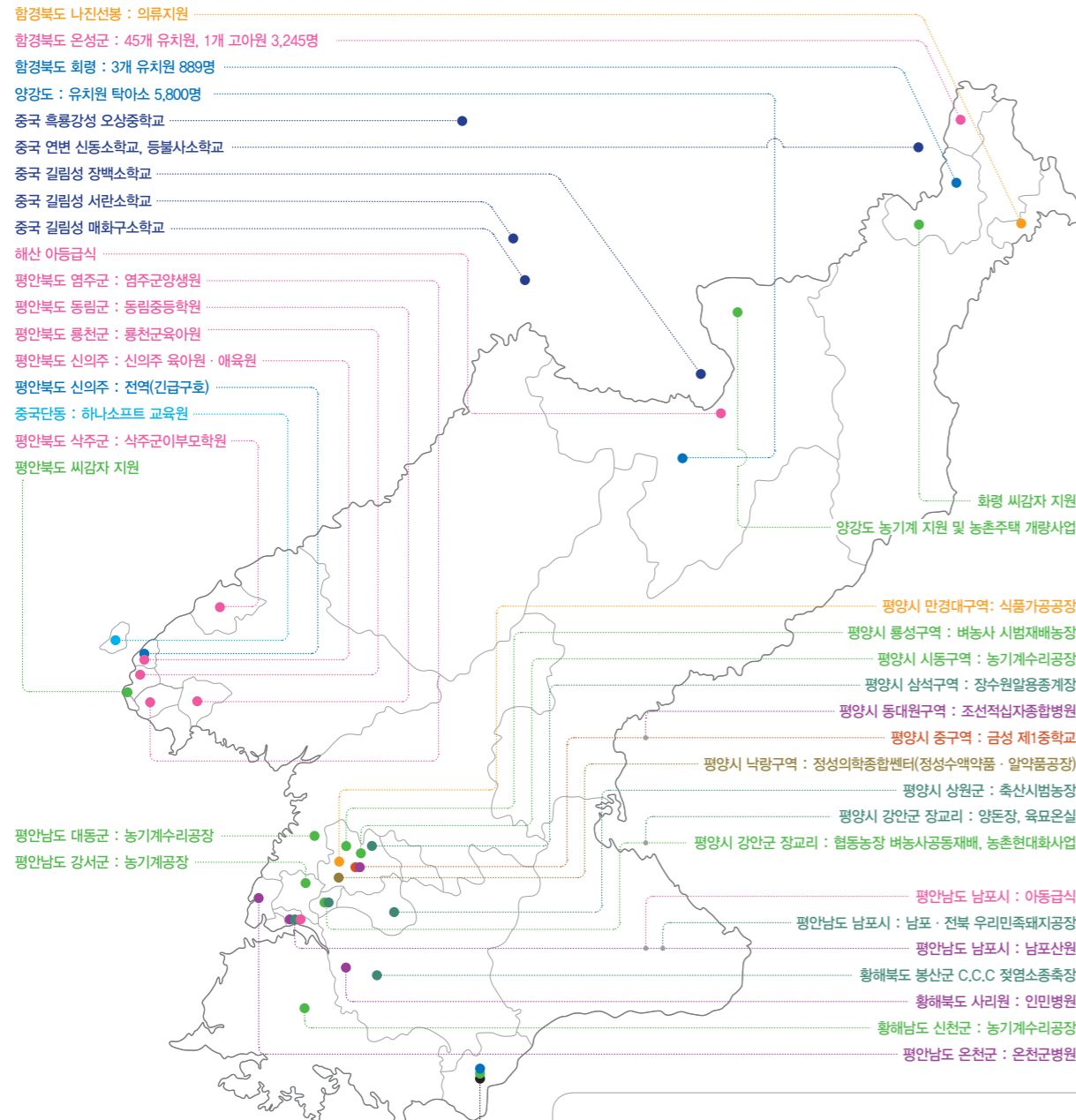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내년 2016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1996년 창립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큰 힘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단체를 2차례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쪽 민간단체들의 '만행'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라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20년을 계승하고 또한 발전시킨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서술한 다양한 사업들이 모아지고 나누어지면서 향후 20년의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나눔이 가는 곳

- 농촌현대화사업
- 축산협력사업
- 교육지원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 긴급구호사업
- 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 생활지원사업



###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볼고그라드 : 한글학교, 고려인축제  
 솔로두시노 : 시설영농단지, 한글학교  
 볼스츠키시 : 한글학교



- 개성시 및 황해도 6개군: 전역(긴급구호)
- 개성시: 개성시 전역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
- 말라리아 방역사업

# 방북자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회 2명		1회 2명									
1999	8	29	2회 13명	4회 10명	2회 6명									
2000	19	79	8회 48명	8회 20명	3회 11명									
2001	20	106	14회 85명	5회 17명	1회 4명									
2002	24	212	20회 203명	3회 7명				1회 2명(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회 356명	2회 7명										
2004	26	168	18회 136명	4회 15명	1회 7명	1회 3명	2회 7명							
2005	62	970	37회 811명	6회 13명	2회 18명	17회 130명								
2006	72	704	60회 647명		2회 2명	8회 48명	2회 7명							
2007	65	2,962	38회 471명		3회 3명	24회 2,488명								
2008	49	618	13회 217명	2회 12명	4회 4명	22회 377명	1회 1명	7회 7명(함북온성)						
2009	25	84	9회 59명		4회 4명	2회 11명		10회 10명(함북온성)						
2010	40	83	2회 21명		1회 4명	5회 26명		32회 32명(함북 온성/회령)						
2011	38	63	2회 6명			8회 31명		28회 28명(함북온성)						
2012	27	30				3회 6명		24회 24명(양강도 해산 함북 온성)						
2013	12	12						12회 12명(양강도 해산 함북 온성)						
2014	11	15				1회 5명		10회 10명(평남 안주, 강원 원산, 양강도 해산)						
<b>합계</b>	<b>521</b>	<b>6,502</b>	<b>243</b>	<b>3,075</b>	<b>34</b>	<b>101</b>	<b>24</b>	<b>65</b>	<b>91</b>	<b>3,125</b>	<b>5</b>	<b>15</b>	<b>124</b>	<b>125</b>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만 집계.  
 2008년부터는 북한 어린이 지원 해외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온성 지역 등에 방문한 횟수를 포함. 해외동포의 평안남도 안주, 강원도 원산, 량강도 해산과 함북 온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한국 국적자의 개성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은 전무함.

# 물자지원 현황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2012	30,453	-	-	371,177	401,630
2013	11,236	36,872	-	391,916	440,024
2014	-	-	-	243,004	243,004
<b>합계</b>	<b>39,784,295</b>	<b>18,269,381</b>	<b>30,784,019</b>	<b>3,460,392</b>	<b>92,298,087</b>

(단위: 천원)

# · 일년을 돌아보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4년 활동일지

### 1월

- 0102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 0102 신년모임
- 0115-0223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학생, 소치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활동
- 0116-20 수원지역 모금 불런터어 중국 조선족학교 방문 활동
- 01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123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2014년 정기총회



### 2월

- 0211-21 초등학교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0220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 토론회'
- 02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227 제73차 공동대표회의
- 0227 평양주재 UN기구 상주조정관 간담회



### 3월

- 0312 헌교과서 수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간담회(회의실)
- 0319 사무처 내부 정책토론회(발표: 최대석 공동대표)
- 03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4월

- 0408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간담회
- 0415 일본 민족학교 도서관에 한글도서 3,000권 지원
- 04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418 2013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 0422 중국 길림성 매허구소학교 네 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 0423 제58차 평화나눔센터 정책모임(주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2014년 남북관계 전망)

### 8월

- 0802-05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 0806-09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 중국평화투어
- 08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816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고려인 랠리팀 입경
- 0819-25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시베리아 기행
- 0830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네모상자 올림피아드'



### 7월

- 0708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지원 자문위원 회의
- 0710-11 <북민협> 워크숍
-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717 말라리아 방역 협의를 위한 개성 실무방문
- 0719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 제2기 개강
- 0722-25 초등학교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072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강원도 원산)



### 6월

- 0613 중국 길림성 장백소학교 다섯 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 06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614 제2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중강(영강초등학교)
- 0624 제59차 평화나눔센터 정책모임(주제: 남북 경험의 현장, 단동)
- 06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5월

- 05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515 사무처 내부 정책토론회(발표: Fernando Jude Lal 교수 -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 0516 공동대표 좌담회(발표: 박경애 교수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 0517 제2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영강초등학교)
- 0526 사무처 내부 정책토론회(발표: 윤여성 소장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9월

- 091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922-25 국제평화축구(F4P) 영국 코치 트레이닝 참가(영국 브라이튼)
- 0923 제74차 공동대표 회의



### 10월

- 1007 제60차 평화나눔센터 정책모임 (주제: 북한 식량난, 정말 끝났나?)
- 1009 부모님과 함께 하는 DMZ 통일평화기행(경기도 파주)
- 1010-13 러시아 사할린 고려인 문화제 참가
- 1011 제3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수원 울전초등학교)
- 10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1021 광주전남본부 정책모임(주제: 남북 체육교류 사업의 발전방안)
- 1022-26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현지연수



### 11월

- 1101 제3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중강(수원 울전초)
- 1106 '2014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중국 북경)
- 1111-25 고등학교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1113 평화나눔센터 하반기 정책토론회(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112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1127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개최(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1130 청소년 평화특강강사: 김명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12월

- 120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1204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구조선족소학교 일곱 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
- 1206 e토마토 증권투자자모임 기부금 전달식
- 1209 중국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2만여 권 발송
- 1219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심포지움(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통일)
- 1223-30 중학교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1229 시민운동연합신문 주최 '2014년 NGO대상' 수상
- 1230 (주)웨스턴테크닉 성금 전달식



## 대북지원사업

2014년 역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게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영유아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2014년 민간의 대북지원액은 16년 전인 1999년 223억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2014년은 대북지원 20여년 역사에 '최악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개성 협의개성 2014.7.17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을 위한 개성 협의 진행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행된 대북협력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7일,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협의를 위해 국내 말라리아 전문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인천광역시(2011년)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황해북도 4개 지역(개성시, 장풍군, 금천군, 토산군) 50만명과 및 황해남도 3개 지역(해주시, 강령군, 웅진군) 43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1970년대 사라졌다가 1993년 다시 발생하였고, 현재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말라리아 전문가들은 여러 역학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말라리아 재출현은 북측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70%는 북한에서 온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의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문제는 남과 북의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남북 모두의 문제이며, 남과 북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조선의학과학원 산하 기생충연구소와 함께 개성에서 진행된 협의는 성과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북측은 국제기구에 공개하지 않은 북측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자료 등을 우리측에 공개하는 한편, 북측의 방역 절차 및 상황에서 대해서도 남측과 공유하였습니다. 남측의 말라리아 전문가로 협의에 참여한 김동수 교수(인하대 의대)도 남측의 환자 발생 현황과 함께 말라리아 방역 및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성에서의 협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이후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맞게 되었고 결국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되어 재개를 모색하던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이 사업 재추진을 목전에 두고 안타깝게 중단되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간 중단된 사업들의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5년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의 추진 재개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하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BaBoi 희망이다"는 2014년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UN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와 서울대통일의학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자강도 지역 어린이의 영양실조 상태가 30%를 넘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닿는 곳까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BaBoi 희망이다" 사업의 지원 물자 종류와 대상지역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빵과 콩우유 가루, 국수 이외에도 내복 및 학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지역도 함경북도 온성군,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원산 등으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지원한 아동복, 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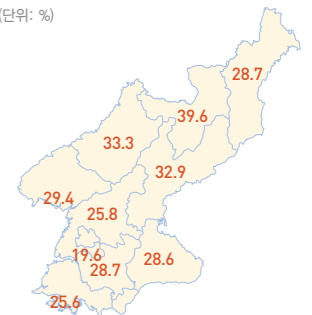
매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국수



##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 북한 영유아의 지역별 만성영양불량 비율

(단위: %)



자료: UNOCHA · 서울대 통일의학센터(2013년)



## 평화교육사업

우리가 꿈꾸는 평화,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일상에서의 평화를 꿈꾸며 한반도 평화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축구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다양성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도 서울·경기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새터민가정, 일반가정으로 이루어진 40여명의 참가자들, 8명의 실무진,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스포츠의 승패와 경쟁을 넘어 평화 원칙(공평과 포용, 신뢰, 존중, 책임감)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학을 전공하고 영국축구협회 인증 축구코치 자격증을 보유한 덴 거전 코치와 함께 참가자들이 축구 기술과 지식, 스포츠 정신을 배우며 평화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는 축구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 머리 사이에 끼우고 달리기(Head to Head)

팀별로 골 세레머니하는 모습

###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 평화 강좌

- 평화, 갈등, 폭력, 갈등 해소 등 평화학의 기본 개념을 배우며, 인권과 평화, 평화 언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강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국민의 지점과 해법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평화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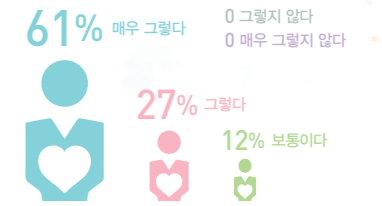
- 남북 분단의 현장, 북·중접경지역 지원사업 현장, 백두산 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선족 토래 친구들과 함께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현지 문화, 역사, 다양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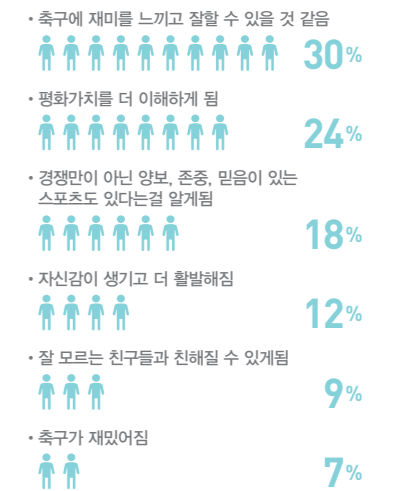
갈등지도 그리기 조별발표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참가자 설문결과

#### 1. 평화4원칙 친구들과의 생활실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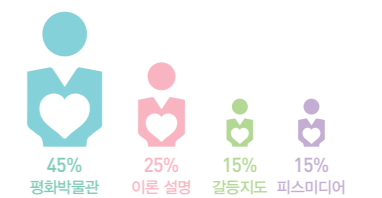


#### 2. 평화축구교실을 통해 달라진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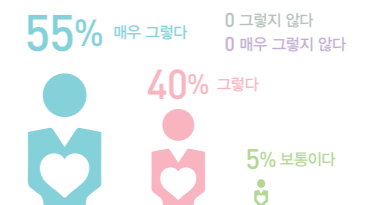


###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참가자 설문 결과

#### 1.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주제



#### 2. 북한, 조선족지원사업의 이해가 높아졌다.





# 헌교과서수거사업

일 년간 배운 헌 교과서를 학생들이 직접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정성들여 모은 헌 교과서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이 되고, 한글 학교가 되고, 한 끼 급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날개를 달아 날아갑니다.

## 2014년에도 헌 교과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 내가 배운 헌 교과서, 기부와 나눔으로

2014년 2월, 일 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한 초등학교, 교내가 왁자지껄 떠들썩합니다. 학생들이 일 년간 배운 헌 교과서를 양손에 들고 운동장으로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의 손 때 묻은 책들이 운동장 한 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과 7월은 초등학교, 11월 고등학교, 12월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헌 교과서 수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 교과서가 총 3,111톤, 참여 학교도 2,052개에 달합니다. 2014년에도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교총 그리고 학교가 함께 만들어내는 재활용자원 기부 캠페인입니다. 헌 교과서를 수거하는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 그러나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돕기로 마음을 모은 교육청, 교총, 학교에서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작은 정성이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학생 한 명의 손에 들린 헌 교과서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한 학급이, 한 학교, 한 지역이 함께 동참했기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기부한 헌 교과서들은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하여 쓰였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잔뜩 모인 헌 교과서가 북한 어린이들의 한 끼 급식이 되었고,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친구들의 한국어 교재가 되었으며, 중국 조선족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이 되었습니다.

빗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우리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주는이와 받는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2월, 7월 초등학교  
11월 고등학교  
12월 중학교

헌 교과서 수거량



2014학년도 총 3,111 톤

참여 학교



2014학년도 총 2,052 개

# 중국 조선족소학교 지원사업



네모상자는 조선족학교 도서관 이름입니다.  
 그 뜻은  
 네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봐 자유롭게  
 입니다.

## 학교 도서관 설치 지원

3곳의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학교	소재지	개관일
매하구시 조선족소학교	길림성 매하구시	2014년 4월
장백현 조선족소학교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2014년 6월
장춘록원구 조선족소학교	길림성 장춘시	2014년 12월



안문길 (록원구 조선족소학교 학생대표)

개학을 맞이하여 선생님들께서 우리들에게 곧 전 동북3성에 몇 개 밖에 없는 훌륭한 도서관을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날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식하느라 똑딱 거리는 소리도, 툭질하는 아츠러운 소리도 음악처럼 들려와 싫지 않았습니다. 3층으로 가지 말라던 부탁도 잊은채 호기심에 끌려 도서관 장식을 기웃거리던 개구쟁이 친구들, 무거운 책상자를 끄고 달려와 땀방창이 되어도 웃음을 칠랑거리던 다정한 친구들, 한결같이 과외독서를 즐겨읽는 우리 록원구조선족소학교 친구들에게 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네모상자”도서관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包国庆 (포국경, 길림성 교육국 민족교육처 처장)

오늘 네모상자도서관의 개관으로 하여 록원구조선족소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새 도서관에 모여앉아 책향기를 맡으며 미지의 신세계를 발견하고 고인들과 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꿈의 나라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록원구 조선족소학교 도서관의 설계와 건설을 적극 지원해주신 한국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은미 (매하구시 조선족실험소학교 6학년 2반)

우리는 한주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열독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책을 읽다보면 많은 새로운 단어들과 재미나는 성구 속담구절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지식도 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여 한국 후원자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록원구조선족소학교 네모상자도서관



매하구조선족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책읽는 조선족학생들



심차구조선족소학교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울진외고학생



리운철 (매하구시조선족실험소학교 교장)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의 얼을 살리고 우리민족의 문화를 살리고 우리민족교육의 앞날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雪中送炭-설중송탄”이라고 우리가 제일 바라던 우리말 동화 역사 과학 등 수많은 도서와 “네모상자” 도서관을 선사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앞으로 더 부지런히 리용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도서관 담당 교사 연수

### 한국 초청연수

2014년 8월 2일(토)-8월 5일(화) 3박4일 동안 조선족학교 교사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교사들은 경기도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강화도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자의 역할과 학교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2014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 동안 길림성 매하구시 조선족소학교에서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 지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변화의 방향, 학교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좋은 독서프로그램이란, 도서분류와 정리해보기, 교사수업개척과 독서활동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종성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을 왜 하는가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예쁜 우리 조선족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아영 (용인 서천초등학교 사서교사)

조선족학교를 살리기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경희 (흑룡강성 하얼빈 동력조선족소학교)

앞으로 연수에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참석해서 함께 하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순길 (길림성 매하구조선족소학교 교사)

도서관은 검사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서관에 미쳐보겠습니다.



2014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도서관 운영 및 활용에 대한 강의



파주 물푸레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조선족학교 선생님



2014 한국 초청연수 평가회의를 마치고

### 한글도서 지원

#### 한글도서 모집

한글도서를 7월과 12월 2차에 걸쳐 각각 2만권씩 총 4만권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수원과 화성시 등 경기도지역 학교에서 한글도서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또 신한은행, 동학민족통일회에서도 책을 모아주었고 비룡소 출판사에서는 2,000권의 새 책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 한글도서 분류

좋은 한글 도서를 보내기 위해 모든 도서는 수원의 분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거칩니다. 분류작업은 인문학, 자연과학,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각종도감류 등을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박스로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도서분류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449명, 학부모 자원봉사자 1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글도서 배분

중국에 도착한 한글도서는 연결의 배분센터를 거쳐 각 학교에 배분됩니다. 배분센터는 조선족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학교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는 한글도서는 총 66개 조선족학교에 500권에서 2,500권씩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 간공조선족소학교 도서전달



길림성 훈춘시 4조선족소학교 도서전달



영덕중학교 한글도서 자원봉사단



학생들 도서분류 봉사활동



길림성 조선족신문 기사



## 2014 볼고그라드 “YOUTH BOLGO~!”

### “2014년, 러시아 이주 150년과 재이주 20여년을 맞이한 볼고그라드 고려인”

러시아 행정문헌에 따르면 2014년은 1864년 연해주에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인 이주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으며 구소련 붕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다시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150년의 세월은 5세대를 넘어 6세대가 태어나고 우리민족의 말과 문화를 많이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볼고그라드 고려인 동포지원 사업은 재이주 정착 긴급지원과 의료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재이주 정착을 위한 시설농업 지원사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고려인 축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이 스스로 한글학교와 동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수익금 등으로 볼고그라드 한글학교와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회복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볼고그라드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  
일시 : 2014년 10월 4일 ~ 5일(1박 2일 간)  
장소 : 볼고그라드 고리끼 도서관  
참가 : 볼고그라드 우리민족한글학교 교사 8명 참가
- 전남 진도 남도국악원 전통무용 및 남도복춤 연수**  
일시 : 2014년 6월 25일 ~ 7월 25일  
장소 : 전남 진도 국립 남도 국악원  
참가 :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한민족무용단 “화승”
-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자원봉사활동**  
일시 : 2014년 1월 10일 ~ 2월 20일  
내용 :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안내 및 식단지원  
참가 :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학생 15명
- 제 13회 볼고그라드 한민족 문화축제 개최**  
일시 : 2014년 7월 18일 ~ 19일  
장소 : 볼고그라드 고리끼 도서관 및 공연장  
내용 : 한국역사, 고려인 역사 강연, 태권도, 사물놀이, K-POP, 전통무용 등
- 한글학교 운영 및 각종 대회와 행사 참가**  
2014년 하반기 한글학교 학생 모집 : 180여명 신청

##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자원봉사단(2014.1.10~2.20)

## 국제협력사업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국내외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하는 북한의 상황에 맞는 대북지원사업을 모색합니다.



캐시 젤버거 Kathi Zellweger  
前 스위스국제개발처 평양사무소장  
스텐포드대 초빙연구원

“북한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 보다 훨씬 빨리 말이죠. 그래서 이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지원 기관들이 모이는 유일한 자리인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주최 단체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 국제 연대를 통해 어려운 대북지원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다



### 여섯 번째 대북지원 국제회의, 북경에서 개최

#### “연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지난 11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본 회의에는 국내외 대북지원 NGO, UN기구, 연구자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본 회의는 지원 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며, 향후 더 나은 대북지원사업의 상을 그리고 서로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회의는 개별 지원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지원 전략 및 협력 틀 구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몇 년째 최악의 대북지원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쪽 지원단체들의 지원사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국제 단체들 역시 기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북한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외부에 알려내야 하며, 또한 개발지원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북지원에 발을 들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 년 한 번씩 모이는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정보 공유의 장일뿐 아니라 서로 간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 “대북지원 20년이 되는 2015년, 인도주의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다”

2015년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남한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국제 NGO, UN기구가 대북지원에 참여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이 열리며 남북관계도 급진전 뒀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지 않던 남북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20년 전으로 회귀하며,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평화’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2015년 국제회의는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지원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임을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와 확대 모색

2014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의 길을 찾고자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이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60회를 넘긴 정책포럼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2014년에는 정세분석과 같은 기존의 논의 주제와 더불어 ‘남북경협’의 현장 단동, ‘기후변화와 북한사회 위기 가능성’ 등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서 남북 문제를 조망했습니다.

이대 통일학연구원과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신년사 분석 토론회’는 이제 북한 연구자들의 신년 하례회로 자리잡았고, 11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팍팍한 대북지원, 남북교류를 어떻게 정상화 할 수 있을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방안을 짚어 보았습니다.

#### 인도지원, 평화, 남북통합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향인 인도지원, 평화, 남북통합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도 지원은 남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며, 평화의 길로 향하는 시작점입니다. 또한, 이 길은 남북통합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길과 숲을 분간할 수 없는 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길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2014년 정책포럼**

- 58회(서울): 4월 23일, 통준위 발족과 2014년 남북관계 전망
- 59회(서울): 6월 24일, 남북경협의 현장 단동 - 5·24 조치 이전과 이후 변화
- 광주 1: 7월 15일, 남북경협의 현장 단동 - 5·24 조치 이전과 이후 변화
- 60회(서울): 10월 7일, 기후변화와 북한사회 위기 가능성
- 광주 2: 10월 21일, 인천아시안게임이 남긴 과제와 남북 체육교류의 방향

**2014년 토론회**

- 북한 신년사 토론회: 1월 2일, 이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
- 정책토론회: 11월 13일, 대북 인도적 지원, 이대로 좋은가?

## 정책연구사업



2014 북한신년사분석 토론회



2014 정책토론회



60회 정책포럼

## 대외협력 (북민협)

### 2014년도에도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한국 NGO들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과 2013년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에 선출되어 활발한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신임 회장단체인 월드비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창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민협은 다양한 주창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하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외적 활동과 더불어 북민협은 2013년 처음 시작한 대북지원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당국간의 회담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었고, 지난 4년간 소수의 민간단체들만이 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축적해 온 남북간 협력사업의 업무 처리 know-how와 북측 파트너와의 협상역량의 유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북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억 (institutional memory)'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대북지원이 정상화되었을 때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억'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였습니다. 주1회씩 6주간 진행된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회 5~60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 성과에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그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맹아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남과 북의 화해와 신뢰의 상징인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2015년은 대북지원 20년을 맞는 해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민협 실무지역강화프로그램(15.5.23)



북민협 통합전략 워크숍(15.8.25)

##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4년의 사단법인 우리민족은 그동안의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며 지난 1년여를 보냈습니다. 지역통일인재 양성과 통일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한반도를 넘어 한민족의 화합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지역교사 통일연수 및 한중자매결연 사업 추진 등 사업영역의 확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 학생부터 교사까지, 분남 너머 통일을 보다. DMZ 현장체험

DMZ통일 캠프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통일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회동안 20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DMZ지역을 방문하고,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각 학교 교사와 함께하는 교원통일연수 DMZ현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수는 평소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 마주하는 분단의 현장과 통일의 관문을 직접 방문하고, 교사의 눈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통일교육의 비전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남북정세 속에서도 통일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한민족, 책 그리고 친구. 조선족민족학교 교육교류협력사업

작년 3월 광주시민들이 모아준 1만권의 한글 기증도서를 요녕성 17개 조선족민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9월에는 한글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무순시 신화소학교 '책향기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 11월에는 민족교류의 의미를 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한민족 책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조선족민족학교 교육교류협력사업의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광주교육청과-심양교육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양 지역 3개 초중학교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교육·문화·언어 등 민족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다. 평화통일 정책포럼

매년 통일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생산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정책화 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평화통일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 제5차 정책포럼에서는 '남북 경험의 현장, 단둥'을 주제로 하여, 단절된 남과 북의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삼각 무역의 현실과 5.24조치의 허상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10월 제6차 정책포럼에서는 '인천아시안 게임 개최'를 중심으로 하여, 2015년 개최될 광주U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정책포럼



책 한 권에 꿈 더하기

#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국 동포 어린이 부산방문



고려인 랠리 부산도착



사할린 방문 - 무원스님, 사무총장



심포지엄

## 중국 동포 어린이 부산 초청

2014년 6월 중국 단둥에서 개최한 조선족 어린이 한국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어린이들을 부산에 초청하여 해운대 동백섬, 송도해수욕장, 삼광사 사찰 체험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 러시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한반도 중주 자동차 랠리 부산행사

자동차로 러시아 대륙을 출발해 북녘 땅을 지나 한반도 마지막 종착지인 부산에 도착하는 날 부산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하여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삼광사 선망 사할린 동포 위령제

일제 강점기하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 갔다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부산 기장에 살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안해준 선생 내외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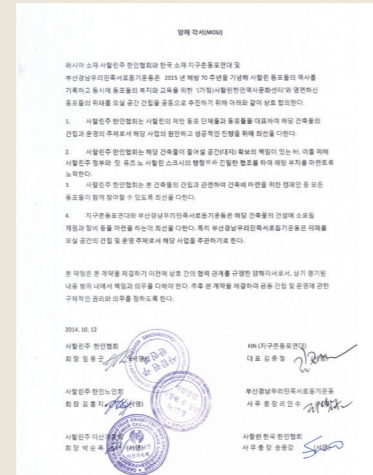
##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추진

2014년 10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할린주 한인단체 등 6개 단체는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2월에는 상임대표 무원스님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강제징용 한인 희생자 무연고자 위패를 안치 할 추모 공간(법당) 건립을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6월에는 사할린 제1공동묘역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하고, 8월에는 합동 위령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통일>심포지엄 개최

무원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영 前부산시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표자로는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통일: '일대일로

[一帶一路]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러 철도협력의 정치경제),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박사(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부산의 환동해 이니셔티브),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방청석의 뜨거운 반응에 발표자들이 매우 고무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양해각서 - 사할린한인역사문화센터 및 사찰건립

# 17년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 돕기 운동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 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초기 이모작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과 아동용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 소식을 접한 미국내 한인 사회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초기 달라스 거주 한인 교포 70여명으로 시작한 운동은 점차 확대되었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한인 사회의 동참이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0년부터는 후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면세혜택이 주어지면서,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동참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교회와 개인들의 참여도 소폭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에 옥수수 120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Ebola로 인해 북측이 방북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60톤 밖에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60톤은 2015년 초 에볼라로 인한 검역통제 및 방북 금지 조치가 철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2년 1월부터는 매월 첫 주일 저녁 5시 반에 "남북 평화 통일"과 "북한 구호 사역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적인 기도회가 열려 적으나마 달라스내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또 1,000여개의 축구공을 중국에서 구입(한국 후원자들의 재정 지원), 원산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했으며, 의료 사업으로는 예년과 같이 미국 Baylor Hospital System의 의약품 지원과 미국 수술 안과 의사인 Dr. Sara Yoon의 자원 봉사에 힘입어 원산에 있는 강원 도립 병원에서 북한의 안과 진료에 관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디뎠었습니다. 또 효과적인 안과 진료를 위해 원산 도립 병원이 요청한 다수의 안과 전문 서적들 (영문)을 2015년초에 발송했습니다.

#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고등학교 축구공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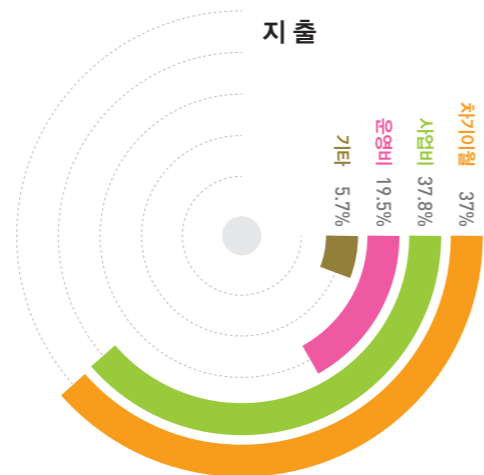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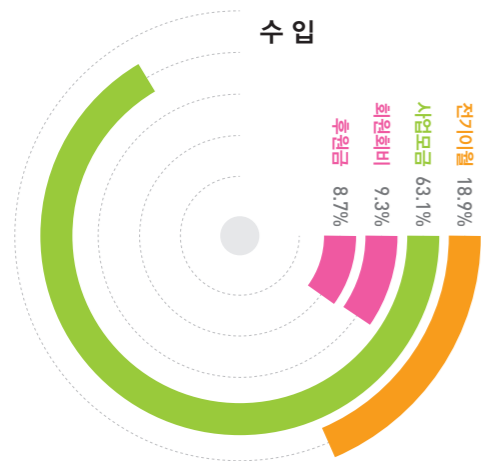
중국단둥 강냉이수송



북한병문 안과진료

## 2014 사업결산

수 입		지 출	
전기이월	322,856,418	사업비	644,956,899
모금	1,075,850,758	대북지원사업비	7,662,514
대북지원사업	181,660,000	북한어린이지원사업비	243,399,472
북한어린이지원사업	243,085,881	재외동포지원사업비	172,656,580
재외동포지원사업	218,181,100	헌교과서수거사업비	138,415,613
헌교과서수거사업	357,695,200	정책 * 평화교육사업비	82,822,720
정책 * 평화교육사업	75,228,577		
운영비 모금	305,153,641	운영비	332,738,872
회원회비	158,189,350	기타지출	96,283,496
후원금	146,964,291	차기이월	631,221,226
기타수입	1,339,676	합 계	1,705,200,493
합 계	1,705,200,493		



##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부천 석왕사 주지  
 윤여두 중앙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 前 아주대의대 교수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동대표**  
 김정우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문찬 법무법인 서정 고문  
 김병준 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 서울의료봉사재단 이사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외과 교수  
 김필건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무 원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 삼광사 주지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원혜영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용선 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재술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석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종 호 인천 영산정사 주지  
 천정배 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 성공회대 외래교수 /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 백두산문인회 회장  
 김중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박남용 사람인 치과 원장  
 박상욱 광양 버스터미널 회장 / 前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영봉 국민대 명예교수 /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 포도엔지니어링 대표, 환경기술사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정외과 교수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사무총장** 강영식 총장  
**사무국** 홍상영 사무국장  
**지원사업팀** 황재성 부장  
**기획홍보팀** 손종도 부장  
 이영재 간사  
 장근영 간사  
**정책팀** 이예정 부장  
**회계팀** 서명희 부장

**광주전남지부**  
**고문**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 광주평화재단 이사장  
 강신석 前 조선대학교 이사장  
 윤장현 前 (사)우리민족 이사장

**이사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임승진 임승진치과 원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광훈 담양주산교회 담임목사

**사무국** 이재봉 사무처장  
 김필운 팀장  
 김석오 간사

**부산경남지부**  
**고문** 정 여 前 범어사 주지  
 이 영 前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상임공동대표** 무 원 삼광사 주지  
 조기종 조기종 치과의원 원장

**공동대표** 권기재 세무사  
 백승룡 삼주그룹 회장  
 윤정미 기장군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차상조 로먼 치과의원 원장  
 현덕수 사월린 한국한인회 회장

**사무국**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충고, 나눔을 기다립니다

채송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향한 저의 작은 정성이 자라는 북녘의 아이들과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영한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계속되어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김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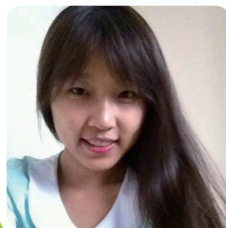
나눔의 확산은 나비효과처럼 빠른 속도로 커져갈 것입니다. 더 큰 나눔의 확산과 함께 소중한 마음들이 이곳에 하나로 모여 곳곳에 있는 한민족들에게 따뜻한 정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은경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곡소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한분 한분을 모두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멀리에서나마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피아요~!!

허설



진정한 자주독립과 통일은 그 어떤 외부의 천하고 속된 것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민족 스스로가 쏟는 피와 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도 더 많은 사랑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 후원자 명단

-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유)명건설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유)행복한 푸드산업 (주)고려정보통신 (주)대용파마텍 (주)리치스톤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새땅무역 (주)세진산업개발 (주)신도데이터통신 (주)여행이야기 (주)이토마토 (주)지담종합건축사 (주)창대산업 (주)창이엔지 (주)클린피에스엠 (주)토마토투자자문 (주)토마토파트너 김복조 강경중 강경태 강경현 강기성 강남준 강달호 강대균 강대현 강동완 강동혁 강민수 강병수 강병태 강병희 강삼용 강선미 강섬부 강성구 강성근 강성학 강승원 강승희 강신 강신우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정미 강정음 강지영 강진영 강창구 강채원 강천일 강철희 강필희 강필희 강혜경 강혜영 강혜영 강혜임 강희재 강희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진TRM 고평현 고권석 고기은 고기철 고봉균 고석주 고세량 고승일 고영삼 고영호 고유민 고정수 고정환 고진광 고창훈 고희갑 공용택 공은영 공지현 광계영 광동선 광수일 광연실 광영한 광정란 광채원 광철 광현 구국모 구수영 구영주 구윤경 구은경 구정희 구종모 권두삼 권병오 권보미 권숙희 권승언 권영운 권오근 권오근 권익산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권태진 권현무 권휘명 금휘식 기나영 길기관 길미성 길창배 김갑수 김갑식 김강안 김경년 김경돌 김경란 김경란 김경태 김경표 김경하 김경화 김계순 김공련 김관식 김관호 김광국 김광식 김광아 김광열 김광진 김구 김구철 김규진 김근섭 김근순 김근우 김금순 이호준 김금평 김기곤 김기동 김기원 김기은 김기정 김기판 김길자 김길철 김나눔 김나눔 김나눔 김당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중 김덕훈 김덕희 김도규 김동근 김동림 김동우 김동진 김동천 김동환 김두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관 김명숙 김명희 김문혁 김미순 김미홍 김민곤 김민범 김민제 김민제 김민희 김병구 김병국 김병규 김병균 김병수 김병운 김병준 김보경 김보연 김부도 김부린 김삼수 김삼천 김삼택 김상근 김상근 김상득 김상범 김상수 김상식 김상영 김상운 김상현 김상호 김석진 김석향 김선명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옥 김선주 김선창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자 김성도 김성봉 김성수 김성숙 김성오 김성우 김성진 김성철 김성해 김성훈 김성훈 고문 김세권 김소영 김수경 김수암 김수역 김수현 김순우 김순한 김승주 김승진 김신영 김신희 김씨돌 김애송(윤방원) 김양수 김양숙 김연옥 김연철 김연희 김영규 김영남 김영달 김영득 김영모 김영수 김영숙 김영재 김영종 김영주 김영호 김옥수 김옥영 김완배 김용덕 김용민 김용재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전 김우종 김원곤 김원국 김원섭 김원영 김윤기 김윤미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혜 김은희 김응곤 김응상 김익곤 김인선 김일성 김일환 김자람 김장권 김장훈 김재광 김재기 김재범 김재욱 김재인 김재준 김재혁 김재홍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현 김정환 김정희 김제호 김종갑 김종관 김종국 김종비 김종순 김종열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혁 김주애 김주영 김주완 김주태 김주학 김준석 김준영 김준현 김중수 김중호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지우 김지이 김진경 김진관 김진문 김진백 김진식 김진영 김진태 김진현 김진현 김창순 김창연 김창영 김태겸 김태균 김태순 김태진 김태평 김태형 김풍기 김학경 김학노 김학성 김학신 김학진 김향숙 김현 김혁제 김현미 김현삼 김현성 김현우 김현자 김현정 김형관 김형순 김형재 김형중



김혜경 김혜경 김혜옥 김혜중 김호식 김호일 김홍석 김홍진 김홍희 김화태 신부 김효은 김효정 김희곤 김희국  
 김희년 김희선 김희순 나병만 나선경 나선길 나원연 나은우 나정현 나종문 나창윤 남미림 남상돈 남세현  
 남영희 남우주 남장현 노관숙 노민화 노승일 노윤미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태완 노호균 뉴스토마토  
 덴거진(Dan Gudgeon) 도재영 동방의밝은빛 동학민족통일회 라병금 라병화 류덕용 류새날 류새벽 류수빈 류승현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재호 류정숙 류주현 류현선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마명락 마윤종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미영 문상규 문석규 문성권 문성권 문성욱 문수정 문용식 문정호 문주성 문찬기 문태환  
 민경기 민순옥 민항석 민현주 박강호 박건 박경관 박경국 박경아 박경호 박계용 박계윤 박귀순 박귀현 박금희  
 박기호 박남용 박동실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무영 박문식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민욱 박병무  
 박병우 박병진 박복영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오 박선자 박성기 박성림 박성은  
 박성찬 박성훈 박세자 박세진 박소희 박순 박순성 박애스더 박연규 박영근 박영철 박요순 박용권 박용수  
 박용천 박원규 박유증 박윤선 박윤훈 박은영 박은주 박익용 박인곤 박인숙 박인순 박인준 박재규 박재묵  
 박재완 박재호 박정란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정화 박종균 박종근 박종록 박종원 박종윤 박종의  
 박종호 박종환 박주현 박준영 박지연 박지웅 박지호 박진우 박청수 박태신 박표균 박현미 박현철 박형준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홍숙 박홍열 박희순 박희윤 반치범 방석환 방재만 방철호 방현섭 배강우 배경이  
 배기안 배덕호 배소영 배수진 배수현 배정민 배향란 백낙서 백낙청 백도인 백상현 백정은 변선애 변은경  
 변진석 봉미란 사랑의채널 산과들농수산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서기원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민희 서순희  
 서연우 서연우 서옥주 서정숙 서지현 서철원 서형교 서혜경 서희순 서희정 석상근 석지홍/석지훈 석지훈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설인혜 성낙준 성도경 성열찬 성완호 성현주 세마포어솔루션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승호 손여준 손영주 손정아 손주현 손진책 손훈 송경민 송두현 송명옥 송민규 송병욱  
 송상용 송상윤 송성도 송용석 송운학 송월주 스님 송은숙 송인규 송재영 송재천 송재현 송정배 송정호  
 송지섭 송춘섭 송형규 송형욱 수명산교회 신경서 신경은 신규호 신기호 신대현 신동석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수억 신순남 신은결 신정식 신종대 신준석 신진현 신진호 신흥수 심경란 심나리 심말선  
 심승섭 심은실 심재규 심재원 심재정 심정보 심현용 심현희 아차도교회 안규식 안명일 임참빈 안명화 안민식  
 안상화 안서윤 안석희 안성주 안세봉 안약천 안영숙 안재형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현성 안효진 양경진 양관승 양근성 양기주 양문수 양미아 양순환 양우성 양윤정 양인보 양재원 양진선  
 양한식 양해리 양해준 양현석 양효정 양희석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엄정교회 엄주일 엄규현 엄동현 엄철  
 영의료재단 오계환 오동일 오명섭 오문택 오선연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록 오승현 오이경 오정진  
 오준희 오태정 오현광 오형석 오형윤 오혜근 오혜선 오화선 오훈정 옥용호 온강민 왕정찬 우광택 우성호  
 우중호 원동오 원순자 원종남 원형복 원효진 웨스턴테크닉 위은량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명랑 유명희

유미경 유방용 유병천 유성식 유성치 유승주 유승희 유시민 유연미 유원희 유윤숙 유재욱 유재진 유재호  
 유종석 유종회 유지수 유진상 유피에스시스템(주) 유하경 유현숙 유희권 육근범 윤광운 윤기홍 윤도희 윤미화  
 윤병현 윤서영 윤석윤 윤석현 윤성진 윤성진 윤승림 윤시원 윤영석 윤여두 윤연수 윤영복 윤영선 윤용근  
 윤자영 윤재희 윤정현 윤정희 윤종식 윤종원 윤주인 윤지열 윤지인 윤지현 윤지현 윤지훈 윤창빈 윤창섭  
 윤혜정 이갑산 이강기 이강찬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재 이경희 이계환 이광훈 이국림 이규 이규문 이규설  
 이근덕 이근태 이근행 이기경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남재 이남철 이남희 이대호 이동민 이동석 이동섭  
 이동수 이동영 이동우 이동원 이동현 이리나 이명석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미애  
 이민성 이민영 이범재 이병국 이병도 이병동 이병재 이병춘 이상복 이상복 이상업 이상업 이상재 이상준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석기 이석용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호 이선호 이성기 이성민 이성수 이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세은 이세준 이수구 이수구 이수명 이수연 이수정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 이승곤 이승영  
 이승우 이승한 이승현 이승환 이양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숙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오영 이옥순 이완수 이용근 이용범 이용선 이용선 이용선 이용성 이용암 이용연 이용찬  
 이우영 이운식 이운정 이운학 이원민 이원배 이원욱 이윤희 이윤관 이은경 이은혜 이응세 이인덕 이인수  
 이인제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장희 이재명 이재술 이재원 이재하 이재학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엽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명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종호 이주형 이준동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진권 이진아 이진택 이찬우 이찬웅 이창용 이창재 이채경 이채린 이천권 이천환 이철희 이춘삼 이춘묵  
 이치수 이태균 이태주 이택준 이필원 이학수 이한결 이한솔 이한택 이항 이항미 이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혜경 이혜란 이혜옥 이혜옥 이혜원 이혜정 이홍우  
 이홍준 이황복 이효식 이희성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임강택 임건재 임광호 임금숙 임갑실 임덕춘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자 임병수 임병철 임세진 임소라 임옥현 임완민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 임재일  
 임정애 임창영 임춘수 임학규 임현직 임형주 장길수 장라미 장명봉 장문호 장민환 장범식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석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은하 장재영 장주혜 장춘용  
 장형수 장환빈 전극재 전기철 전달수 전뢰진 전미란 전범권 전병은 전병태 전병희 전성관 전영일 전영일  
 전용운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종수 전진원 전제남 전충수 전항이 전혜린 전훈 정경순 정경옥 정계현  
 정광수 정광식 정근 정근영 정기성 정기운 정란아 정명준 정미선 정미혜 정민 정범진 정병헌 정성모 정성원  
 정석만 정성경 정성호 정성희 정수근 정수조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수희 정순지 정연실(송경평) 정연웅 정연정  
 정영자 정영철 정용식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욱 정재환 정정옥 정정태 정종원 정종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진영 정찬광 정창수 정태은 정한성 정해문 정해열 정현곤 정현철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인 정후진 정흥귀 제해성 제해준 조갑식 조기봉, 세운 조남숙 조대엽 조두연 조만용  
 조민지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성숙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희 조응원 조재현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석 조준혁 조지현  
 조진영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해기 조현, 조윤 조현영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주관수 주로미 주송순 주원섭  
 주재열 주현기 주혜영 주희옥 지선경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상호 진양숙 진용순 차규화 차현애 차형철  
 채병철 채보미 채송화 채우혁 천경배천봉실 천정배 최경미 최경인 최규원 최기수 최기천 최병희 최사라 최성도  
 최성범 최성수 최세문 최수자 최수진 최숙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식덕 최아람 최양옥 최영림 최영신  
 최영희 최우정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윤표 최의찬 최인엽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숙 최정애  
 최정환 최종철 최준수 최준혁 최지원 최진욱 최진원 최창윤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송  
 최희은 추진해 탁병섭 탁종녀 포항바다교회 푸른초장교회 풀무학교 하승창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기백 한길석 한나영 한녹희 한다솔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학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상균 한상만 한서정 한성희 한승엽 한영숙 한예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인숙 한정화  
 한지섭 한진욱 한창균 한창수 한창현 한하니 합기문 함용운 허경기 허귀석 허민석 허설 허원종 허인웅 허정  
 허정윤 허준웅 현대로지스틱스(주) 현대명덕판매대리점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종스님 현종윤 현지연 호영진  
 홍광표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란희, 최은서 홍면기 홍미옥 홍민경 홍상운 홍석 홍석조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윤정 홍제표 홍준석 홍진표 홍창영 홍현선 화신농건 환성스님 환성스님 황계연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성주 황소리 황영자 황의중 황인선 황장권 황재성 황재용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지환  
 황창규 황현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나누어주신 사랑,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전달되는 북녘동포를 향한 나눔은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후원안내

• CMS(자동이체) 후원 : 소식지 후원신청서 작성 발송

•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 CMS(자동이체) 신청, 휴대폰, 신용카드 후원

•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국민 01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로번호 7641271

• 홈페이지 [www.ksm.or.kr](http://www.ksm.or.kr)